

## 가톨릭 간호원의 역할

이 정 지 수녀

메니놀병원

부산교구 간호원회장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시작된 간호가 세기를 거듭하면서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해서 「병들고 약한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서 심신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주는 것으로」(Caring → Helping behavior) 가정밖의 병원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러 간호관 「인간이 환경과 압력에 적응하는데 가능한 한 최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생과정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조력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며,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동적이고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질병중심의 임상간호에서 건강복지를 지향하는 지역사회간호로, 개인간호에서 대집단간호로 변화함으로써 간호원의 역할은 확대되었고 그 진출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한편 물질만능, 실리주의가 범람하고 인정이 고갈되어가는 오늘날 자기 스스로 태우면서 남에게 불을 밝혀주는 촛불과 같은 역할을 도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간호원이 얼마나 존재 할 것인가?

직업은 인생의 직분이요 사회적 식책으로서 우리에게 자아실현의 기쁨을 주고 사회적공헌의 의의를 부여한다. 「하느님께서는 교회안에 다음과 같은 직책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요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이요 다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또 그 다음은 병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 등입니다 (고린도전서 12 장 28 - 31).

그러므로 간호직은 생명의 차원에서 식분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또한 직분식, 식책의 관념이 최고도에 달할때 (하늘이 나에게 맡긴 직분이요 하느님한테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성직이라고 는

낄때) 천직의식, 소명의 관념이 생긴다.

그러면 이시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뿔고 들수 없는 사회로 알려진 곳이라도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펴고 실천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 간호원들의 역할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모성면 : 몸이 튼튼할때는 세상을 한손으로 움켜질듯 하다가도 일단 병상에 누우면 누구를 의지하고 보살핌을 바라는 어린이로 퇴행하기에, 병들고 약한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와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손길은 X-Ray 가 비추지 못하는 수 많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투병의 쓰라린 마음을 아물게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위안과 지원이 간호원에게 요청되고 있다.
2. 선교면 : 고통은 고통의 신비를 알아 듣도록 환자를 인도하며 모든것을 순화하는 고통 한복판에 “숨어 계시는 천주님”을 만나게 해 주고 일어나는 모든 사정안에 내포 되어 있는 진가를 일깨워놓는 고통은 일종의 피정이기도 하다. 간호원은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기에 그의 영적 욕구충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사도적 힘을 간직) 아주 좋은 입장에 있다. 분주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잠깐씩 틈을 내어 성경낭독, 기도, 간단한 대화등 간호원의 도움을 환자는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 들일것이다.
3. 봉사면 : 사회는 실리적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간호원에게는 봉사적인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가 10장 25-37 절)에서와 같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힘껏 다 해 줄수 있는 형제애에 기반을 둔 헌신은 그 간호원을 통해 그리스도를 내어 주는 사도직을 준비케한다. 모든 인간적 < 36면에 계속 >

보건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하도록 도와주는 간호원의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 외에 자신의 투철한 믿음과 사명감으로 병든이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안정을 찾도록하여 아픔과 슬픔으로 부터 해방되는 구원자로서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 (여기에는,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대세를 주는 임무가 포함됨)과 아직도 의료사업의 손길이 뻗치지 않고있는 무의촌지대를 누구의 강요도 충고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돕는문제,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같은 우리민족도 상수하기를 꺼려하는 낙도에 오로지 신앙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않는

외국인 신부나 수녀 혹은 형제, 자매들을 볼때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확고한 신앙관으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실천하는 행동을 보임으로 우리 한국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 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3%임) 이렇듯이 가톨릭신앙인으로서의 간호원의 역할은 어렵고도 막중하나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간호야 말로 가톨릭의료인으로서 취하여야할 좌표인 동시에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간호야 말로 그리스도교회의 일부분이며 또한 종교의 실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것이다.



< 37 면에서 >

풍요로움을 갖춘 간호원으로서의 꾸준한 봉사는 그들 만나는 모든이에게 학교, 가정, 산업장, 보건소, 병원, 군대등지에서 펼쳐진 복음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다.

4. 교육면, 윤리면 :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건강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히 병든 인간은 가장 순수하게 건강을 갈구하는 동기가 있기에 건강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며, 또한 간호원은 환자를 학생을 통해서, 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접촉으로 여러가지 사회문제와도 직면하게 된다. 가정의 은밀한 곳도 들어나며, 종교적 결합이나, 시정해야 할 사태 (윤리문제, 부정, 비행 등)나, 악의 만연 같은 것도 볼 수 있기에, 보고 듣고 신뢰심을 얻을줄 아는 간호직에 충실한 간호원에게는 넓은 시야가 트이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비도덕주의 사조에서 하루 바삐 탈피 할 수 있도록 구조대 (가톨릭간호원회등)가 조직되어 연합전선을 펴서 제독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할 것이다.

5. 관리면, 협조면 :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

들에게 요구되는 관리면은 물품 (시설, 비품, 공급품) 관리, 의무사무관리, 인사관리로서 매우 복잡다난하며, 간호원은 가장 환자와 밀접하게 접근된 상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중적, 횡적, '인간관계에서 그 분위기 조정에 중추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원목실과의 연락, 협조등 여러직원들과 가정, 본당, 지역사회 기관 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을수 있도록 중개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간호원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톨릭 신자 간호원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간호직은 유달리 지혜와 성실과 친절과 봉사가 요구된다. 참된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정직하고 헌신적인 노력은 바로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며, 건강의 사도로서 환자, 가족, 지역사회에 성의를 다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과 인정을 받으면서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일하는 가톨릭 간호원은 바로 "인간애를 갖고 기적을 일으키며 봉사하는 간호원"인 것이다.